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과 한의계의 대응전략

손창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간장면역학교실

Progress of Functional Food Market in Korea and Strategy of Korean Medicine

Son Chang-Gue

Liver and Immunology Research Center of Daejeon University Oriental Hospital

Objectives: To analyze the growth pattern of the functional food market in Korea, and thus produce essential information in mapping out a strategy for Korean medicine.

Methods: A survey of literature or analysis reports about market changes related to functional foods in Korea was undertaken.

Results: The Korean functional food market has been growing rapidly, to 1.4 trillion won in 2012 compared to 250 billion won in 2004, which is an annual growth rate of about 14%. In particular, individually-approved functional food is worthy of notice regarding its growth rate and functional position, which is similar to herbal drugs. The expanding growth of functional food affects negatively the decrease of herbal drug industry in Korea to date.

Conclusions: To compete with functional foods, the Korean medicine community needs to develop patient-friendly and cost-effective herbal drugs, and strategies to adopt them as therapeutic modalities.

Key Words : Functional food, Korean medicine, herbal drug

서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념은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 발달되기 시작하여, 식품의 생체조절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건강유지 및 증진과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¹⁾. 미국의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는 건강기능식품(Functional Food)을 “잠재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형적인 영양소보다 건강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변형된 식품이나 식품성분”으로 정의하였다²⁾.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³⁾, 이러한 역할은 양약에 비하여

한약의 전통적 역할과 상당히 겹치는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특정한 단일 약물로서 개선되는 어려운 성인병의 높은 유병률 및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⁴⁾.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세계 시장규모는 약 890억 달러에 이르렀고 매년 약 6%의 성장을 하여 2015년도에는 약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⁵⁾. 한국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 Received : 5 February 2014 • Revised : 4 March 2014 • Accepted : 18 March 2014

• Correspondence to : 손창규(Son Chang-Gue)

대전시 중구 대흥동 22-5번지 대전대학교 부속한방병원 간장면역학교실

Tel : +82-42-229-6807, Fax : +82-42-254-3403, E-mail : ckson@dju.ac.kr

에 1조 원을 돌파하고 2012년도에는 1조 4천억 원에 이르렀다⁶⁾. 한편, 2012년도 한방건강보험의 총 진료비는 1조 9천억 원이었으며, 특히 한약에 의한 비용은 총 324억 원에 불과하며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⁷⁾.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와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는 것에 반하여 한약시장은 위축되어가고 있다. 한의계가 가장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는 과학화와 표준화에 대한 문제를 건강기능식품은 국가가 법률로서 정해놓은 규정에 의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설득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분석 및 전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의학계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연구와 발표한 논문은 극히 드물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의 현황과 성장특성에 대한 주요한 정보들을 분석함으로써, 한의계의 체계적인 대응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국내에서 발표된 보고서 및 논문들을 조사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연도별 생산량과 소비형태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을 위한 웹사이트(<http://www.foodnara.go.kr/hfoodi/>), 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한국식품연구원(http://kfri.re.kr/social/health_food.php), 한국한의학연구원(www.kiom.re.kr)의 보고서를 비롯하여, 한국 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http://kmbase.medic.or.kr/>) 및 대한한의학회지를 비롯한 관련 학회지들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논문을 조사하였다. 기초조사를 위한 검색 핵심어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식품, 개별인증형 및 한약제제로 설정하였고 검색기간

은 2014년 2월 20일까지였다.

본론 및 고찰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용어

식품의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⁸⁾. 의약품이 질병상태를 치료하는 것이고 생명체의 성장 발달 유지를 위해 섭취하는 것을 식품이라 할 때,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건강유지 증진의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식품과 의약품의 중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³⁾. 즉, 식품의 1차 기능(영양 기능)과 2차 기능(기호적인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식품이라면, 건강기능식품은 3차 기능(생체조절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말한다⁹⁾.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보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용어가 국내 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표준용어인 “건강기능식품”외에도 “기능성식품”을 비롯하여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영양식품” 혹은 “약효식품” 등처럼 법규에 없는 용어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상용되고 있다¹⁰⁾. 이러한 용어들의 혼란은 관련된 영어표현인 “Functional Food”, “Health Food”, “Dietary Supplements”, “Medical Food”, “Nutraceutical”, “Phytochemical”, “Botanical” 및 “Designer Food” 등을 한국어의 직역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결과라 여겨진다. 각국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용어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예로 일본은 Foods for Specified Health Use라고 하고¹¹⁾, 미국은 “Medical Foods”와 “Dietary Supplements”를 따로 두고 있으며¹²⁾, 캐나다의 “Functional Food”와 Nutraceutical로 구분하기도 한다^{13,14)}.

2.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의 규정

한국에서의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법률은 1973년 식품위생법상에서 영양강화 식품제조업의 신설

을 시작으로 1987년도에는 건강증진의 용도가 추가 되고, 1989년에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의 업종이 신설되면서 건강보조식품이 점차적으로 등록되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식품위생법에서 독립하여 제정 공포되고, 2004년 시행규칙 및 고시가 공포되고 시행되었다¹⁰⁾. 일반식품에 비하여 건강기능성 식품은 법률상 영양소기능과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및 생리활성기능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생리활성기능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3가지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⁸⁾.

현재의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인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로 제조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과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 원료로 제조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눈다. 2014년 1월 현재 90여종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와 140개의 개별인정 원료가 등록되어 있다⁸⁾.

3. 한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

한국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약 2,500억 원

에서 2012년도에는 14,000억 원으로 5.6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약 14%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다^{6,15)}(Fig. 1). 품목별 2012년 생산실적은 홍삼/인삼제품이 49.2%(6,934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12.8%(1,807억 원), 비타민무기질이 11.7%(1,646억 원), 알로에가 4.9%(687억 원) 프로바이오틱스 3.7%(518억 원) 및 오메가-3 함유물이 3.5%(49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¹⁵⁾(Fig. 2).

4.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성장

건강기능식품의 1위를 유지하는 홍삼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비하여, 특히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등록건수가 2008년에 50건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총 151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¹⁶⁾(Fig. 3). 따라서 생산실적도 2008년 416억 원에 비하여 2012년도에는 1,807억 원으로 약 4배가 급증하였다⁶⁾(Fig. 4). 품목별로는 간건강에 효능을 인정받은 헛개나무과병 추출분말이 2012년도에 1,80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면역기능에 도움을 주는 품목으로 인정받은 당귀 혼합추출물이 202억 원으로 다음을 차지하였다^{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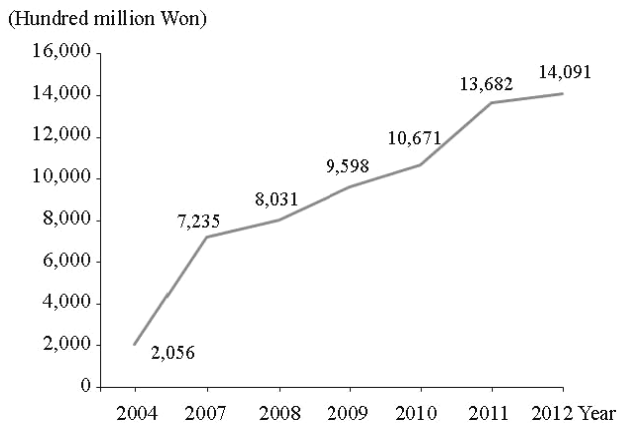


Fig. 1. Annual production of functional foods in Korea. Total market size functional food production was shown from 2004 to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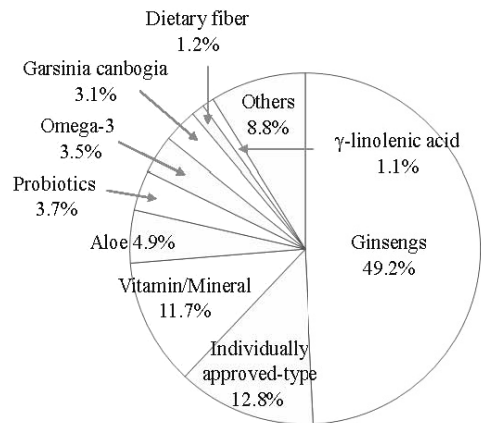


Fig. 2. Market share of functional foods in Korea. The market share of main functional food in 2012 was sh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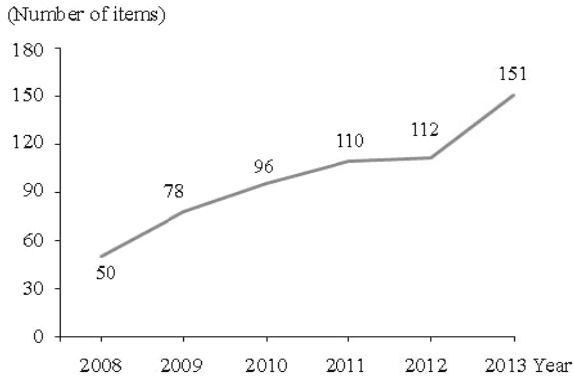


Fig. 3. Number of individually-approved functional food in Korea. The sum resource number of individually-approved functional food was shown by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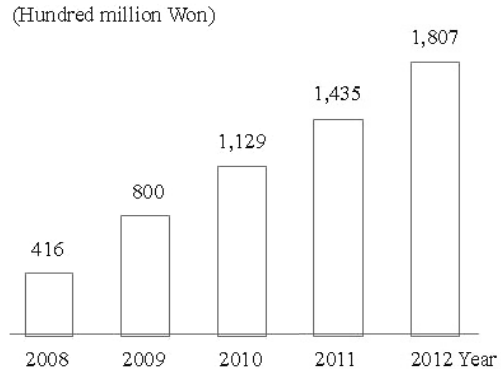


Fig. 4. Market size of individually-approved functional food in Korea. Total market size individually-approved functional food production was shown from 2008 to 2012.

5.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팽창에 대한 한의계의 대응전략

한국에서 생산되는 한약제제의 전체 생산량은 2012년도에 2,555억 원이었으며¹⁷⁾, 2012년 건강보험으로 처방되는 한약제제는 324억 원에 불과하였다⁷⁾. 반면 2012년 건강기능식품의 생산량이 약 1조 4천억 원으로 이미 한약제제 시장의 약 5배를 넘어섰다. 현재 새롭게 펼쳐지는 의료시장의 특징을 개인맞춤(Personalized), 조기에측(Predictive), 참여의료(Participative) 및 예방적(Preventive) 의학을 지칭하는 P4 medicine이라 한다¹⁸⁾. 예방의학적인 측면에는 전통적으로 서양의약에 비하여 한약이 경쟁력을 보여 왔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질병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한약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최근에 진실성의 유무를 떠나서 한약의 간독성을 비롯한 안전성에 대한 강한 부정적 여론이 강화되어 왔다¹⁹⁾. 반면 건강기능식품 소비의 증가와 더불어 안전성에 대한 많은 경고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에도²⁰⁾, 식품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성 염려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효능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소비자의 선호도가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기능성식품 재료에 대한 수많은 세계적 연구와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이나 표준화된 효능표시제 등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²¹⁾. 오랜 임상적인 사용과 한의학적 고전에 근거를 둔 한약에 대한 이미지 보다이렇게 새롭게 연구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을 더욱 신뢰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반증이다. 한국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공식홈페이지의 건강기능식품을 설명하는 첫 페이지에 보면 “건강기능식품은 과학입니다”라는 문구를 써놓았는데, 이렇듯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성에 대한 국가적 신뢰부여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여겨진다.

셋째, 표준화와 제형의 다양화는 한약발전의 매우 중요한 숙제로 여겨지고 있다²²⁾.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제도적으로 재료 및 생산의 표준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캡슐이나 타정 및 액상 등 일반적인 약물과 동일한 제형으로 복용의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높은 선택과 신뢰를 받고 있다. 소아환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한약보다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복용의 편리성이

라고 하였는데²³⁾, 아마도 전 연령층에서도 보편적인 인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마케팅과 구입의 용이성 면에서 건강기능식품은 한약을 압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에 참여하면서 더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마케팅을 펼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²⁴⁾. 이러한 광고를 통해서 얻는 제품정보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전국의 다양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²⁵⁾.

건강기능식품의 빠른 성장에는 시대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체계적인 환경들이 주요 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수많은 과학적 연구결과들과 국가가 법률로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소비자들에게는 더 커다란 신뢰를 주었다고 판단된다²⁶⁾. 반면에, 문헌의 근거를 가장 중시하거나 한방 의료인이 각각 조제하는 탕약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한약에 대한 신뢰도나 선호도의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에는 세계시장은 물론이고 한국에서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이 더욱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개별인증형 건강기능식품의 확대는 한약시장의 위축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인증형 건강기능식품은 최소한의 임상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표준화되고 현대화된 한약의 대체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탕약에 대한 한의사들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는 대신, 표준화된 신제형의 한약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과학적 표준화와 편리하고 다양한 제형을 기본으로 발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예에서 그에 대한 필요성은 증명되었다고 하겠다. 다양한 제약회사를 통해서 캡슐이나 타정 및 액상 등 신제형의 한약제제를 생산토록 함으로서 교체되는 새로운 세대에 한약의 사용 편리성을 높여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러한 신제형의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편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에 편입되지

못하는 형태는 소비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치료의 선택유무를 결정하라는 것인 반면, 의료의 비용을 국가의 재정으로 지불토록 한다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이러한 진료선택을 국가가 보증하고 장려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건강보험 총지출의 약 5% 미만이 한방진료로 지불되고 있는 실정에서, 한방제제의 적극적인 처방으로 제약회사들이 시장에서 성공토록 함으로서 한의사의 국가 산업적 시장에 대한 공헌도를 키워야 한다.

마지막 하나는,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 되어 발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한의사의 진료영역에 제도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건강기능식품의 선택을 소비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한의사로부터 진료에 따른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토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방의학이 현실의료에서 점차 중요해져 가는 환경에서 한의사들이 환자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의 의학 적 처방은 국민의 예방의학적인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래에 질환으로 건강상태를 소비할 잠재적 환자에게 한의사에 의한 전문적인 건강기능식품의 처방이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의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 논리를 개발하여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시킬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

한국에서의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팽창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그 동안 한약이 담당하여 왔던 의료의 한 역할을 건강기능식품이 대체하는 경향으로 작용하면서 한약시장의 성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왔으며 점차 더 심해질 수도 있다. 한의계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한약제제의 현대화와 보험급여 확대를 서둘러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한방진료 영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지원(K14272)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참고문헌

1. Shimizu T. Health claims on functional foods: The Japanese regulations and an international comparison. *Nutr Research Review*. 2003;16: 241-52.
2. Thomas PR, Earl R, et al. Committee on Opportunities in the Nutrition and Food Sciences, Institute of Medicine: research challenges and the next generation of investigator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994:109.
3. Kim SH. A Survey on the Use of and Significant Variables for Health Functional Foods Among Korean Elderly. *Korean J Food Culture*. 2011;26(1):30-8.
4. Park SC, Oh MY, Kim HS. A Study on usage of health improving agents in Seoul & Busan. *J Korean Diet Assoc*. 2005;11(4):440-8.
5. NBJ's Global Supplement & Nutrition Industry Report. 2012. Available at: URL: http://newhope360.com/site-files/newhope360.com/files/uploads/2013/04 /TOC_Global_final.pdf
6.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alysis Report for Annual Production of Functional Foods in 2012. 2013;1-7.
7.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2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2013:176.
8.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vailable at: URL: <http://www.foodnara.go.kr/hfoodi/main/sub.jsp?pageCode=1>
9. Moon JS. Study on Strategics of Health Food Industry. *Korean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4;12-3.
10. Imfact, 2013 Market Report for Functional Foods and their Materials. Seoul. 2013:65-8.
11. Takata H, Kaneda F, Suguro R, Baba H. Current System for Regulation of Health Foods in Japan. *JMAJ*. 2004;47(9):436-50.
12. Ross S. Functional foods: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erspective. *Am J Clin Nutr*. 2000;71(6):1735s-8s.
13. Sibbald B. Health Canada leery as US "nutraceutical" movement prepares to move north. *CMAJ*. 1999;161(6):742.
14. Fitzpatrick KC. Regulatory issues related to functional foods and natural health products in Canada: possible implications for manufacturers of conjugated linoleic acid. *Am J Clin Nutr*. 2004;79(6 Suppl):1217S-20S.
15. Um IY, Jeon HJ. Industrial Analysis Report for Functional Foods. *Foundation Agri. Commercialization and Transfer*. 2013:14-6.
16.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vailable at: URL: <http://www.foodnara.go.kr/hfoodi/main/sub.jsp?pageStr=10&pageCode=260&viewType=list&searchType=strSubject&keyword=>
17. B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2012 Year book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aejeon:Kumkang press. 2014:233.
18. Sobradillo P, Pozo F, Agusti A. P4 medicine: the future around the corner. *Arch Bronconeumol*. 2011;47(1):35-40.
19. Cheon CH, Park JS, Park SJ, Kweon KT, Shin YC, Ko SG. Necessity of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through the Trend of Internet News about Safety of Herbal. *Kor. J Oriental Preventive Medical Society* 2011; 15(2):131-43.
20. Hwang WM, Kim MH, Yun GR, Lee GB, Go JM, Kim YH. A study on safety of functional

- healths foods. Kor. J. Vet Serv. 2008;31(2): 239-54.
21. Kang EJ, Kim JY, Kwon OR, Kim MC, Kim GH. A Study on Labeling Regulation for Reliability and Understanding Improvement of Health Functional Food. J Food Hyg. Safety. 2008;23(1):51-61.
 22. Choi MK, Kim HG, Wang JH, Son CG. The Application of High Performance Thin Layer Chromatography for Herbal Formula Standardization. J Korean Med. 2011;32(4): 68-7.
 23. Kim MK, Jung JH, Min DL, Lee HJ, Park EJ. Study to Examine the Awareness of the Parents, whose Children are Attending an Elementary School in Gyeonggi-do, on Herbal Medication and Health Functional Food. J Pediatr Korean Med. November. 2011;25(1):111-8.
 24. Hankyung news. Available at: UR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1362131>.
 25. Choi JH, You CH, Kwon YD. Effects of Health-related Factors on the Use of Health Functional Foods. Korean J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1;5(4):27-39.
 26. Ohn J, Kim JH. Intake Pattern and Needs Assessment for the Development of Web-Contents on Health Functional Foods according to Age of Adults. Korean J Community Nutr. 2012;17(1):26-3.